중앙일보

정부, 故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주필에 서훈 추진

[중앙일보] 입력 2016.07.06 11:48 수정 2016.07.06 15:46

정부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평생 노력했던 고(故)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1948~2016) 전 아사히신문 주필에게 훈장 추서를 추진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6일 "고인이 작고한 직후부터 각계에서 와카미야 전 주필이 한일 우호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기려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건의됐다. 그를 직접 알지 못하는 인사들조차도 고인이 대외적으로 했던 활동 등을 봤을 때 정부가 뭔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서훈 관련 자료에서 고인에 대해 "일본 내의 양심적인 지한파 언론인으로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평생 공헌하고,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일본 내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서훈 여부는 행정자치부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고인은 한국과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수교훈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와카미야 전 주필은 1970년부터 2013년까지 아사히신문에 재직하며 논설주간, 주필 등을 역임했다. 한·일관계는 물론 한·중·일 3각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해왔다.

고인은 평기자 시절 일본 사회에서 차별받는 부라쿠민(部落民)에 대해 취재하다 재일동포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알게 되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식민 지배·침략을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계승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사설을 통해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언론인 생활을 마친 뒤에도 일본국제교류센터 시니어펠로우, 한국 동서대 석좌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애썼다.

고인은 지난 4월28일 중국 베이징에서 별세했다. 당시 와카미야 전 주필은 한·중·일 심포지움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중이었다.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그를 추모하기 위한 모임도 열렸다. 동서대(총장 장제국), 서울대 일본연구소(소장 박철희), 한일포럼(회장 유명환) 등이 모임을 주최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